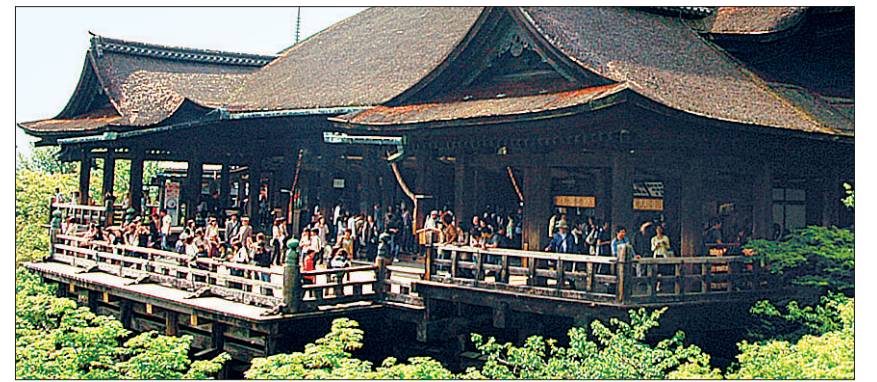




신라 장보고 대사가 해신으로 모셔져 있는 연력사에는 원도군이 기증한 장보고 대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아이들은 이 비석 앞에서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합작품인 동대사



정수사를 둘러보는 답사단의 모습

한중일 넘나든 해상왕 기상 직접 확인

장보고아카데미, 8·15 광복절 맞아 일본 속 백제문화 탐방

8·15광복절을 10일 앞둔 8월 5일 저녁,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 답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완도 신항사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저녁예불을 올리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생애 처음의 일본여행을 앞둔 흥분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들은 전남 완도 신항사에서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대표 법일)의 일본 불교문화답사에 참여한 완도지역 아이들이었다. 8월 6~8일 진행된 이번 답사는 신라말 장보고 대사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연력사 등 일본 사찰, 백제유적을 둘러보고 불교문화 전래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답사에는 완도 어린이 25명과 함께 지도교사 4명이 참여했다. 답사단의 출발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법일 스님은

아이들이 불교문화 유적을 보고 역사의식과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기를 당부했다. 법일 스님은 “장보고의 후예들이 장보고와 역사적으로 큰 인연을 맺었던 엔닌스님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백제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한국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 예불에 이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조별모임이 진행됐으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과정이 소개됐다. 이번 답사단이 방문하는 지역은 백제가 문화를 전해 준 일본 고대문명인 아스카문화가 꽃을 피운 오사카와 나라, 교토 지역이었다. 8월 6일 이른 아침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첫 일정은 고대 백제인들이 터를 잡고 한반도의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문화를 만든 나라 지역이었다.

백제불교의 흔적이 그대로, 법륜사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백제인이 일본에 건너와 지은 절인 법륜사였다. 법륜사는 일본건축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찰로 고대 일본 백제계 쇼토쿠 태자의 일찰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인 법륜사는 7세기 백제 기술자들에 의해 건축됐다.

특히 법륜사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미 절실된 백제 양식의 불상 2구를 볼 수 있었다. 600년경에 늑나무를 깎아 만든 ‘구세관음’과 ‘백제관음’으로 1년에

법륜사, 엔라쿠지, 동대사 등 답사 日 엔닌스님, 장보고 도움으로 당 유학 적산법회원서 공부 후 엔라쿠지 중창 “선조들 불교문화 日전파 자랑스러워”

단 한차례 외부에 공개된다. 답사단은 운 좋게 그 기회를 잡았다.

‘구세관음’은 백제 성왕의 모습을 본뜬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 아이들이 더욱 유심히 보는 듯했다. 투명 유리관 속에 모셔진 백제관음은 세속을 넘어선 존재인 듯 육감적인 느낌이 배제됐다. 부드러운 얼굴선, 눈썹의 감성적인 곡선, 서산마애불에서 보이는 ‘백제의 미소’를 연상케 했다.

법륜사의 가치는 1500년전 한반도에서는 잃어버린 백제탑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비록 670년에 원래의 탑이 불타 없어졌으나, 이후 복원된 지금의 탑 또한 당시의 백제기술을 이어받은 장인에

의해 복원됐다. 이렇게 보면 백제인들은 탁월한 건축감각을 지녔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건축가들은 신라에 와서 무려 80미터나 되는 황룡사 9층탑을 세운사람이다. 법륜사탑은 그에 비하면 33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최고의 건축가는 백제인들이라 말할 만하다. 여기에 보존과 기록에 있어서는 탁월한 일본사람들의 기술력이 더해져 완벽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장보고 대사 인연 서린 엔라쿠지

이어 답사단은 장보고 대사의 비가 서 있는 엔라쿠지로 향했다. 장보고 대사와 엔라쿠지와 인연은 1200여년전으로 거슬러 간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보면 일본 엔닌(圓仁) 스님은 장보고 대사의 도움으로 당나라에 유학해,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적산법회원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엔라쿠지를 중창했다.

완도군은 엔닌스님과 장보고대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엔라쿠지에 공적비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 장보고의 고향 완도에서 온 아이들은 기념비 앞에서 화이팅을 힘차게 외쳤다.

김재원 학생(완도 수산고)은 “장보고 대사의 후예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한중일을 넘나들며 해상에서 한민족의 기상을 뽐낼 것을 본받고 싶다. 또 엔닌 스님 일화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자신을 빛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구려·백제·신라의 합작품, 동대사

여름날 일본여행은 무더위와 높은 습도와의 싸움이다. 탑사단 29명에는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이 함께했다. 서로를 잘 챙겨주는 역할을 나눠서인지 순례에는 큰 장애가 없었다. 답사단에 두 번째 날 세

계시대 청동불상이 있는 동대사를 향했다. 동대사는 한국의 고대 삼국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절이다.

낮은 이국땅에 와서 세계최대의 문화재를 만들었다는 설명에 아이들은 신기해한다. 동대사 가람의 총책임자는 고구려인 고려복신(高麗福信)이 맡았으며 청동대불의 주조는 백제인 국중마려(國中麻呂)가, 그리고 대불전 건축은 신라인 저명부백제(著明部百世)가 맡았다.

이 기술자들을 모아 동대사를 완성한 스님은 백제계 행기 스님과 양변 스님이었다. 추호립 학생(완도 수산고)은 “이게 우리 조상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니 신기하다”며 감탄을 토했다.

사천왕사와 오사카성

일본 답사의 마지막 날 답사단은 오사카로 향했다. “성덕태자는 누구예요?” 한 아이가 질문했다. “한국과 일본 고대 역사에서 이 분을 바로 알아야 한일역사를 바로 본다”는 답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성덕 태자는 일본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다. 백제계인 성덕태자는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의 많은 사찰을 건립했다. 당시 백제계의 유명한 가문인 소가(蘇我)가문의 후원을 받아 불교국가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비조사, 법륜사, 사천왕사 등은 성덕태자가 발원하여 만든 국찰이었다.

일본 답사를 마치고 완도로 돌아오는 길에, 답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소감을 들었다. 몇 명의 아이들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을 오가는 문화, 경제의 교류를 이해하는 듯 했다. 탑사를 통해 부처 성정한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발길을 옮겼다.

일본=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사카성 앞에 놓인 130톤의 돌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를 올리는 답사단

‘지구촌 보물 1호’ 현지사 대적광전 - 누구도 몰랐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실체를 밝힌다

우리나라의 안녕과 남북한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전쟁을 방지하는 인류 평화의 파수꾼



현지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부처님, 우주법계에서 최초로 불교를 얻은 법왕

2600년 전에 남섬부주에 사람됨을 받아 부처님이 되셨던 석가모니부처님은 그 때 처음으로 불교를 이루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무량겁 전에 불교를 증득했으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서 인신(人身)을 받아오신 것입니다. 이 인신의 몸을 응화신(應化身)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이미 오랜 곁전에 성불하셨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경전

이(법화경 여래수광품)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최초로 불신(보신)을 증득하여 부처님이 되신 분이 ‘노사나불’이시고, 그 부처님의 청정법신불 이름이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3신을 말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역화신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체의 존재이지만 각자 개별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만고(萬古)의 비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실체를 밝힌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리 우주법계에서 최초로 불교를 얻으신 석가모니불의 법신불이면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불신을 증득한 노사나불 이후에 모든 부처님은 이 부처님의 가피로 불교를 증득하셨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법계를 태양처럼 비추는 무량광 빛 덩어리, 광명지체(光明智體)로서 법계를 일체로 일체시에 비추고 있으며 그 광명은 우주에 편만해 있습니다. 분별과 의지를 떠나 있는 진리의 이불(理佛)이지만 청정법신에 원만보신불이 결합되면 그 때의 비로자나불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 청초주적인 우주적인 위신력을 발휘합니다.

■ 공을 깨친 자리, 자성이 법신?

기존불교에서는 진여, 자성, 본래면목, 공을 증득하면 법신을 증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불교의 법신은 자성광의 세계이지만 실제의 청정법신은 더 깊은 차원의 무량광의 세계입니다. 무량광은 자성광



대적광전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있는 스님들

보다 강도나 광도 면에서 훨씬 수승한 빛의 세계입니다. 무량광은 자성광의 역기스, 본원광으로서 대승경전에서는 무량의중광, 열반광이라고도 합니다. 역경다성의 수행을 통해 보살도를 성만한 대수행자의 여의 지(智)가 우주본성의 이(理)와 하나로 결합한 무형의 우주적 몸이 청정법신입니다.

■ 현지사 대적광전은 이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세계를 삼정광 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진리의 빛인 무량광명이 충만한 대적광의 세계이므로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을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불은 광명변조(光明遍照)의 의미로 진리의 광명이 법계를 두루 비추는 뜻입니다. 이 비로자나불은 무형(無形)으로 특정한 형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상으로 구현해 놓지 않으면 그 위대한 부처님을 중생들이 알지 못하

므로 현지사에서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형상으로 비로자나부처님을 봉안해 놓고 있습니다.

■ 비로자나불의 우주적 위신력을 사바세계에 높입니다

현지사 대적광전은 불교를 이룬 큰스님에 의해 점안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이룬 큰스님이 점안하면 이 비로자나불상은 삼정광세계에 있는 실제의 비로자나불과 무량광 빛으로 링크(연결)되어 필요한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비로자나불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총칭하고 있으므로 어떤 부처님이라도 이 비로자나불상을 통해 현지사에 현신하고 상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절의 대적광전은 점안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신부처님이 상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지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이 비로자나불은 두 분 큰스님께서 우리나라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발원이 성



현지사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고성분원 정기법회 9월 1일(월) 오전 9시

※ 추석연휴 관계로 법회를 앞당겨서 개최합니다

업장을 벗어나는 세계유행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교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야 할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6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버스 운행합니다.

문의 033)243-1787 / 033)681-5515